

다시 한번 UN 에 공의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래의 영상을 보시고 그 메시지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http://www.honestreporting.com/a/UNHypocrisy.asp>

유대식 “삼위일체”

어떤 사람들은 “유대식(式)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쓰며,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토라, 이스라엘 땅이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예슈아의 메시아 되신 권세에 반하기에,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지 못하기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적 요소들을 우상숭배의 형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과 율법, 그 땅이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둘을 연결하는 방법은 우리 조상들에게 여호와와 천사(the Angel of YHVH)로 나타나신 예슈아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창 12:7, 15:17, 17:1, 18:1-33, 22:15). 창 18 장에서 여호와께서는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식사하시며 소돔의 멸망을 논하시고, 사라를 통한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천사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라 불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이실 수 없는 것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슈아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상에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로 하신 그 신인(神人, God-Man)인 것입니다. 실상, 유대 민족에게 결정적 순간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곧 예슈아와 가족의 언약을 맺은 때였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예슈아 없이 하나님과의 언약만 원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언약을 맺은 대상이 바로 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민족 없이 예슈아만 원합니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예슈아께서 등장하신 순간으로부터, 토라에나 복음서에나, 그 분께서는 유대 민족과 연결되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언약으로 엮인 것처럼, 예슈아와 유대 민족도 엮여 있습니다. 하나를 빼놓고 하나만 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부정한 아내에 대한 신실한 남편과 같으십니다(호 1-2).

이스라엘의 율법

거룩한 여호와와 천사는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여러 번 나타나십니다.

출 3:2, 4 - 천사와 하나님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출 14:19, 24 - 역시 천사와 하나님으로 표현됩니다.

출 17:5-6 - 바위에서 물을 낼 때 모세 옆에 서계십니다.

출 24:10-11 - 모세와 70인의 장로 모두가 인간 형태의 하나님을 봅니다.

출 33:21-21 - 모세는 바위 틈 사이에서 주님의 뒷모습을 봅니다.

이 존재는 하나님의 사자(使者)이기에, 우리 하늘 아버지이실 수 없습니다. 천사요 여호와로 불리는 걸 보면, 보통 천사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사자인 이 여호와의 천사일 수 있는 분은 예수아뿐이십니다. 그 분께서 출애굽과 시내 광야의 여정 내내 모세와 함께하셨다면, 그 분께서 손가락으로 10 계명을 새기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요 8:6 에서 예수아께서 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 쓰신 것을 보십시오). 예수아와 10 계명의 연결 고리를 통해 우리는 토라와 복음서에 대한 계시적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 윤리 기준이 없는 복음은 세상적이고 육적인 형태의 기독교를 낳습니다. 메시아의 구속적 희생이 없는 토라는, 개인의 구원이 없는 종교적 의식주의를 만듭니다. 예수아께서 10 계명을 쓰셨기에, 윤리적 기준 없는 복음은 있을 수 없으며 메시아의 희생 없는 토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아께서 간음함으로 10 계명을 깬 여인을 용서하실 수 있던 것입니다(요 8).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실 수 있던 것입니다(막 2:28). 젊은 부자 통치자에게 영생을 얻으려거든 10 계명을 지키라고 하실 수가 있던 것입니다(마 19:17).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쓰신 분께서 예수아십니다—출 20:2. (그렇기에 10 계명 중 첫 번째가 여호와의 천사이신 예수아의 신성에 대한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오늘날 국제 정치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주제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점령”과 “정복”은 같은 단어입니다(코베쉬). 그런데 누가 최초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여리고 전투 전날 저녁, 한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수 5:13-15). 그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했습니다(떨기나무에서의 모세에게 일어난 일과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를 “주”라 부르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역시 이것도 일반적 천사일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이실 수도 없습니다. 탄생 이전 모습의 예수아이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천사 형태의 장관이 여리고 공격을 지휘한 것입니다. 그의 군대가 성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투 가운데 땅을 정복하도록 이끈 것이 그의 군대입니다(수 10:11, 출 23:23, 삼하 5:24, 사 2:1-4).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땅과 지구 상의 모든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여호와의 천사 곧 예수아께서 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 백성(열국의 의로운 남은 자)을 위해 이 지구를 다시 취하시는 첫 번째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예슈아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재림하셔서 여리고 전투에서 시작하신 이 과정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땅 없이 예슈아만 믿고 싶을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예슈아 없이 이스라엘 땅만 원합니다. 그렇지만 둘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점령을 놓고 벌어지는 오늘날의 논란은 예슈아의 재림에 반대하는 사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하나님의 지구에 대한 소유권에 반하는 것입니다.